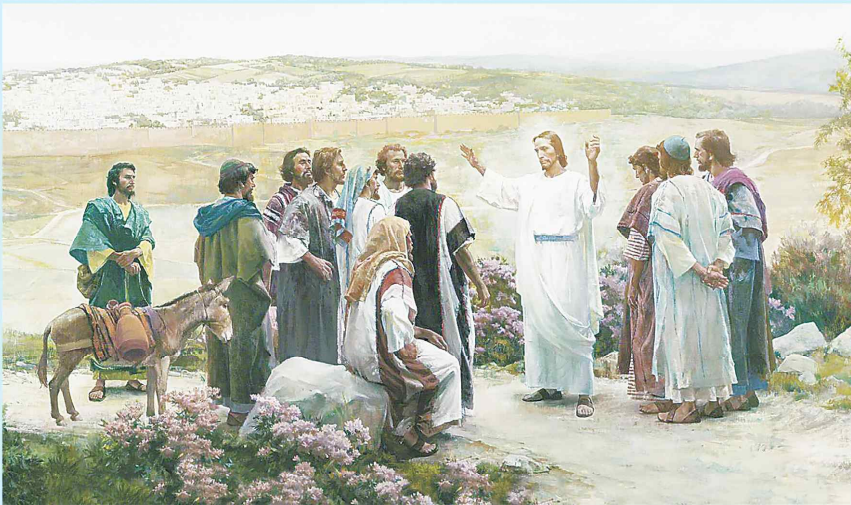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10월 19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마태오 28,16-20)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나지막한 산에 머물러 있다. 그들의 숫자는 유다를 뺀 열한 명이고, 나귀를 끌고 있는 제자가 있어 그들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산으로 여행 중에 있음을 나타낸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팔을 벌려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분 몸 주위에 광채가 있어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자들의 몸짓과 표정과 시선에서는 놀람과 의심, 무덤덤함이 엿보인다. 어떤 이는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이는 바위에 걸터앉아 있으며, 어떤 이는 뒷짐을 지고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듣는 제자들의 자세들이 실망스럽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세와는 상관없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가르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뒤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작가 해리 앤더슨 | 1973년, 유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미국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되게 하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이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당신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당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마태 28, 19참조)

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가르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마태 28, 20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가르치시거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마다 하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상 여정 동안 하신 말씀과 행동은 모두 하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자리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또한 하늘 나라의 신비를 위해 살아가라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늘 나라의 신비를 간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일상 안에서 하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늘 나라의 신비와 점점 더 멀어지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하늘 나라의 신비를 간직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웁시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마태오 28장 19-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우리 공동체 속 이주민 ▶ 10월 5일, 이주민들의 희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우리 공동체 속 이주민 구성원들을 알아보고, 소공동체 모임에 초대하기

내 삶 속에서

- ① 본당 미사나 행사 시 만나게 되는 이주민 구성원들에게 인사 건네기
- ② 먼 타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묵주기도 5단 바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3번 “은 세상에 전파하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